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홍미에 미치는 영향

지 용 근[†]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역할 정체감이 초등학생의 진로홍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도 초등학교 6학년 457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 t test, 일원변량분석, Tukey 사후비교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탐구형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진로홍미를 보였으나, 탐구형을 제외한 실제형,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과 전통형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진로홍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의 초등학생이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의 초등학생보다 탐구형, 실제형, 심미형, 사회형과 진취형에서 높은 진로홍미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성취지향적, 합리적, 그리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높은 진로홍미를 나타냈다. 그리고 진로홍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여성성, 부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 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요인이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진로홍미를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가 요구되면, 교육현장에서는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담활동 및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양육태도, 성역할 정체감, 진로홍미, 양성성

지용근은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강사로 제직중

[†] 교신저자 : 지 용 근, (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건영빌라 916동 303호
전화 : 031-708-7736 E-mail: cute100@hanmail.net

개인은 직업을 통하여 각 개인의 잠재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보람과 궁지를 느끼며 장래의 생활을 만족하고 풍요롭게 영위하게 되며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개인이 직업 선택을 할 때에는 자신의 능력, 적성, 성격과 흥미 등과 같은 내적 요인뿐 만 아니라 가정환경, 부모의 기대와 직업조건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Bailey & Stadt, 1973)하여야 한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로발달을 생애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진로발달이론에서 Ginzberg(1951)은 직업선택의 과정을 흥미, 능력과 가치관 등의 주관적 요소와 현실세계와의 타협의 과정으로 보았다. 즉 발달단계의 초기에는 이루어지는 선택과정은 개인의 흥미, 능력과 가치관에 좌우되지만, 나중에는 이 요인들과 외부적 조건이 함께 타협됨으로써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Super(1984)는 계속적인 생애단계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발달적 과업을 통해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초등학교 시기를 진로발달의 성장기로 보고 이 시기에는 진로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흥미가 중시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로발달은 생애적, 발달적, 과정적인 측면을 수반하는 것으로 초등학교시기에 원만한 진로발달을 이루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다.

한편 직업선택과 발달에 있어서 Holland(1992)는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인성유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직업성격이란 주위의 환경적 압력이나, 직업선택, 이직 등과 같은 문제상황이나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개인이 취

하는 기술이나 태도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직업적 성격에 따라 현실적, 탐구적, 심미적, 사회적, 진취적, 전통적 직업환경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직업적응방식도 현실적, 탐구적, 심미적, 사회적, 진취적, 전통적 여섯 가지의 성격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개인의 성격유형과 유사한 직업환경유형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어린 시절 양육환경이나 사회·문화적 기대 및 규범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적 태도 및 행동을 학습하게 되고,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성격특성이나 행동양식을 내면화 과정 속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 성역할은 개인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포함된 총체(Block, 1973)이며, 사회집단에 의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남성과 여성 즉, 양성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행동양식이다(Hurlock, 1978). 우리는 성역할을 통하여 자신의 외적 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적응양식 등을 나타낸다(Mussen, 1969). 전통적인 성역할 모형에서는 성과 일치하는 성역할 정체감을 가질 경우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하며,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역할 특성에서 벗어날 수록 부적응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성역할 개념인 양성성의 개념을 넣게 되었다. Baggigo와 Neilson(1976)은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상대적으로 적응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Fitzgerald와 Betz(1987)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과학, 기술과 기계 분야의 활동에서 더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은 사교, 예술, 사무분야의 활동에서 더 높은 흥미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비전통적 직업을 선호하고 여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전통적 직업을 선호한다(Gianakos

& Subich, 1988; Wertheim, Widom & Wortzel, 1978)고 하였다. 남성적인 특징은 도구적이며 행위적인 것으로 목표지향성, 주장적인 행동, 자기 계발, 독립성을 포함하고, 여성적인 특징은 표현적이며 친화적이므로 정서적, 의존성, 민감성과 사적관계 중시와 같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Ellen, 1987).

또한 초등학교시기에 아동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자 혹은 중요한 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방식이 아동의 행동양식이나 인성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된다. Symonds (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Schaefer(1959)은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면 타인을 잘 따르고 신뢰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어려운 일을 수행할 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Baumrind(1971)는 부모 역할의 유형을 통제, 성숙요구, 의사소통과 양육으로 나누었다. 성숙하고 능력 있는 아동의 부모는 통제, 성숙요구, 의사소통과 양육의 네 가지 차원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Maccoby 와 Martin(1983)은 부모역할의 유형을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으로 나누고, 가장 바람직한 양육방법은 권위적 유형으로 자녀들과 빈번한 의사소통을 갖고 욕구를 수용해 주는 동시에 확고한 표준과 규칙에 따른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면 자녀들은 능력 있고 사회적 책임을 갖는 아동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이종승과 오성심 (1982)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성취-비성취 차원은 자녀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요구하며, 끈기 있게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며, 합리-비합리 차원은 매사에 이유를 중시하고, 교육방침이 이성적이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말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기 아동의 성격 형성 및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

직업에 대한 흥미의 정도는 직업선택은 물론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탐색 변인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 직업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고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 직업선택에 있어 지능이나 적성검사를 사용하는 경향을 점차 감소하는 데 비하여 오히려 흥미검사의 사용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Zytouski & Warman, 1982). 이는 성공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뿐 만 아니라, 흥미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김남규, 1999). 그러나 흥미가 동기적 성질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흥미가 어떤 일에서의 성공을 전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흥미가 곧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흥미와 같은 정의적 요인 이외에 여타 인지적, 심리운동적,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로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흥미가 어떤 과업을 끈질기게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흥미는 환경적 요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여러 활동영역에 노출되어 보는 경험, 특정한 흥미를 추구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흥미 추구과정에서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로부터의 인정과 보상이다. 이와 같이 흥미란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자신의 동기, 포부, 필요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점차로 학습되어 가는 것이다(전용오, 2000). 따라서 진로지도에 있어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흥미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진로흥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로에 대한 흥미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아동기의 진로흥미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관련하여 성역할 정체감 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역할 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흥미와의 관계

성역할 정체감은 초등학교시기 아동의 진로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Baggigo와 Neilson(1976)은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응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비전통적 직업을 선호하고, 여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전통적 직업을 선호한다(Gianakos & Subich, 1988; Wertheim, Widom & Wortzel, 1978). 이재창과 임

용자(1995)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적 유형은 여성적, 양성적, 미분화적 유형보다 더 비전통적 진로유형과 비전통적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여성적 유형은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적 유형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Marsui(1994)는 도구성(남성성)은 남성지배적 직업과 표현성(여성성)은 여성지배적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성별 자체보다는 성역할과 관련된 특성이 더 상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가장 진로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라고 한다. Basow와 Howe(1979)는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에 관해서는 부모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모델임을 밝혀냈다. Hollander(1972)는 학생들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며, 대학시절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관련 태도와 성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Roe(1956)는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욕구를 갖고 있고 이러한 욕구의 차이는 어린 시절의 부모-자녀관계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직업지향성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직업군의 선택은 부모-자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욕구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성차(gender difference)는 직업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 자기주도 진로탐색 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심미형과 사회형 차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흥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Woodward, 1994).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과학, 기술, 기계 분야의 활동에서 더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은 사교, 예술, 사무분야의 활동에서 더 높은 흥미를 보여 주고 있다 (Fitzgerald & Betz, 1987). Farmer(1985)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서비스와 관련된 직업에서 높은 흥미를 보이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술이나 엔지니어링과 같은 과제 중심적인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흥미를 보인다고 하였다. 윤정선 (1999)은 중학생의 직업흥미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집단은 남성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며 과제 중심적인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 집단은 여성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며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김남규(1999)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 전통형 진로흥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으며, 탐구형 진로흥미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형 진로흥미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성별에 따라 진로흥미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흥미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흥미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흥미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응답자는 478명이었으나 검사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21명을 제외한 45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구성은 남학생 219명(47.9%), 여학생 238명(52.1%)이다.

검사 도구

성역할 정체감 검사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Bem(1974)의 Sex-Role Inventory를 홍성옥(199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남성성을 나타내는 20 문항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남성성 13문항, 여성성 9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BSRI 체점방법에 의거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의 중앙값을 계산하여 중앙치 반분법(median split method)에 의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남성성 변인이 .79, 여성성 변인이 .80으로 나

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검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종승과 오성심(1982)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와 합리-비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화시켜 분류하였고, 각 차원별로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애정-적대 14문항, 자율-통제 10문항, 성취-비성취 13문항과 합리-비합리 11문항의 총 4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차원에서의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5, .66, .68, .74로 나타났다.

진로흥미검사

진로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Holland의 자기주도 진로탐색 검사를 토대로 김남규(1999)가 제작한

초등학생 대상의 육각형별 진로흥미에 관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실제형 10문항, 탐구형 10문항, 심미형 10문항, 사회형 10문항, 진취형 10문항과 전통형 10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사회형 1문항, 전통형 1문항을 제거하여 총 5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실제형 .73, 탐구형 .86, 심미형 .87, 사회형 .73, 진취형 .85, 전통형 .80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검사도구를 사전검사를 통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사도구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에 있는 4개 초등학교 6학년 457명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 검사,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진로흥미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검사의 결과 처리는 총 피험자의 남성성 척도 문항과 여성성 척도 문항 점수의 중앙값을 계산하여 BSRI의 중앙치 반분법에 의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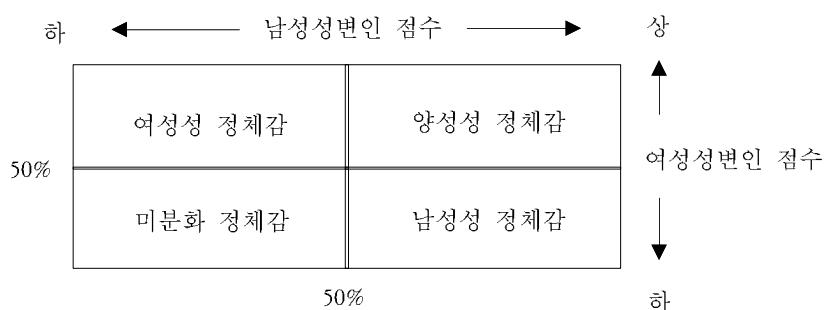


그림 1.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남성성 변인이 중앙치 이상이고 여성성 변인이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 정체감으로, 남성성 변인이 중앙치 이상이나 여성성 변인이 중앙치 미만이면 남성성으로, 반대로 남성성 변인이 중앙치 미만이나 여성성 변인이 중앙치 이상이면 여성성으로, 그리고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이 모두 중앙치 미만이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 정체감 149명(32.6%), 남성성 정체감 92명(20.1%), 여성성 정체감 113명(24.7%), 미분화 정체감 103명(22.5%)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의 결과 처리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 차원별 점수에 따라 상위 25%의 집단과 하위 25%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 두 집단간 진로홍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와 합리-비합리차원의 점수가 상위 25%인 집단을 각각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차원의 점수가 하위 25%인 집단을 각각 적대, 통제, 비성취와 비합리적 양육태도 집단으로 분류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각 집단 간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 성역할 정체감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홍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성역할 정체감이 초등학생의 진로홍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검사도구의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추출된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 방법인 varimax 기준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Tukey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홍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one way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

성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와 같다. 탐구형에서 초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탐구형 직업유형에 많은 홍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탐구형을 제외한 실체형,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과 전통형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심미형 직업유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심미형 직업유형의 진로홍미는 성별의 구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체형 직업유형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지만, 다른 직업유형과 비교해 보면 남녀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실체형 직업유형의 진로홍미는 성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겠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

초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

표 1. 성별에 따른 진로흥미의 차이검증

		실재형	탐구형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	전통형
남	평균(표준편차)	13.80(3.91)	19.47(6.73)	14.83(4.87)	12.55(3.86)	15.45(5.60)	12.08(3.94)
여	평균(표준편차)	14.52(3.43)	16.59(6.31)	21.83(6.97)	15.29(4.75)	18.00(6.89)	13.87(4.88)
t	값	- 2.08*	4.71**	- 12.43**	- 6.77**	- 4.33**	- 4.30**

*p<.05 **p<.01

표 2.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흥미의 차이

관련변인	성역할 정체감유형	M(SD)	SS	MS	F	Tukey
실재형	미분화	13.19(2.61)				
	여성성	14.53(4.20)				
	남성성	13.81(3.22)	176.66	58.89	4.40*	미분화<여성성, 양성성
	양성성	14.75(4.04)				
탐구형	미분화	15.96(6.20)				
	여성성	17.79(6.25)				
	남성성	17.54(6.35)	1019.77	339.92	7.97**	미분화,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양성성	19.95(7.04)				
심미형	미분화	16.36(5.95)				
	여성성	19.89(7.23)				
	남성성	17.64(7.33)	769.05	256.35	5.45**	미분화<양성성, 여성성
	양성성	18.92(6.84)				
사회형	미분화	12.53(4.28)				
	여성성	14.69(4.59)				
	남성성	13.08(3.83)	447.10	149.03	7.53**	미분화, 남성성<여성성, 양성성
	양성성	14.80(4.78)				
진취형	미분화	14.43(4.52)				
	여성성	16.86(6.51)				
	남성성	16.23(5.51)	1030.92	343.64	8.81**	미분화<여성성, 양성성
	양성성	18.49(7.38)				남성성<양성성
전통형	미분화	12.10(3.88)				
	여성성	13.85(4.52)				
	남성성	12.33(3.88)	220.53	73.51	3.65*	미분화<여성성
	양성성	13.31(5.14)				

*p<.05 **p<.01

홍미의 차이를 표 2에서 보면, 실제형에서는 진로홍미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성이거나 여성성집단과 미분화 집단은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성성이거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보다 실제형 직업에 대한 진로홍미가 높다. 탐구형에서도 진로홍미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성 집단과 다른 집단과는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의 탐구형 진로홍미 점수가 높다. 또한 심미형에서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성이거나 여성성 집단과 미분화 정체감은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성성이거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지 초등학생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보다 심미형 진로홍미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형에서는 진로홍미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성이거나 여성성 집단과 남성성이거나 미분화 집단은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성성이거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지 초등학생이 남성성 이거나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보다 사회형 진로홍미 점수가 높다. 진취형에서도 진로홍미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성이거나 여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과는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고, 또한 양성성 집단은 남성성 집단과 이질집단이었다. 따라서 양성성이거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지 초등학생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보다 진취형 진로홍미 점수가 높다. 또한 전통형에서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은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성 정체감

을 가지 초등학생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보다 전통형 진로홍미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차원별 점수에 따라 상위 25%의 집단과 하위 25%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 두 집단간 진로홍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와 합리-비합리차원의 점수가 상위 25%인 집단을 각각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차원의 점수가 하위 25%인 집단을 각각 적대, 통제, 비성취와 비합리적 양육태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점수의 상·하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각 집단 간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부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

부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부의 양육태도와 진로홍미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부의 애정적, 성취지향적 그리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실제형을 제외한 모든 직업유형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형 진로홍미와 부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또한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홍미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못하였다.

부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제형에서는 부의 애정-적대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진로홍미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애정적일수록 실제형 직업에 진로홍미를 느끼고 있었다. 탐구형에서는 부의 성취 - 비성취, 애정-적대와, 합리 -

표 3. 부의 양육태도와 진로흥미의 관계

	실재형	탐구형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	전통형
애정-적대	.07	.13**	.12**	.17**	.11*	.11*
자율-통제	-.03	-.07	.02	-.03	-.03	.00
성취-비성취	.06	.22**	.08	.16**	.16*	.14**
합리-비합리	.07	.11*	.08	.15**	.10*	.14**
양육태도(총점)	.06	.13**	.10 *	.15**	.11*	.13**

* $p < .05$ ** $p < .01$

비합리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진로흥미 점수 차 이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과업지향적이고 성취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애정을 가지고 자녀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보다 탐구형의 직업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심미

표 4. 부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흥미의 차이 검증

	<i>M(SD)</i>	<i>t</i>		<i>M(SD)</i>	<i>t</i>		<i>M(SD)</i>	<i>t</i>
실 재 형	애정	14.85(4.28)	2.43*	애정	18.56(6.80)	2.28*	애정	19.68(7.05)
	적대	13.65(3.45)		적대	16.70(6.04)		적대	16.75(6.62)
	자율	13.86(3.07)		자율	17.45(6.62)	- 1.91	자율	18.54(6.50)
	통제	14.48(4.13)		통제	18.98(7.16)		통제	18.10(7.71)
	성취	14.36(3.90)		성취	19.64(7.15)	4.22**	성취	18.93(7.32)
	비성취	13.94(3.48)		비성취	16.25(5.97)		비성취	17.69(6.81)
사 회 형	합리	14.75(4.22)	1.55	합리	19.10(7.22)	2.23*	합리	19.68(7.03)
	비합리	13.99(3.72)		비합리	17.27(6.03)		비합리	17.78(7.16)
	애정	14.84(5.29)		애정	17.63(7.09)	2.57*	애정	13.64(5.69)
	적대	12.76(3.47)		적대	15.53(5.68)		적대	12.05(3.86)
	자율	13.81(4.27)		자율	16.47(6.40)	- 1.31	자율	12.84(4.64)
	통제	14.38(5.07)		통제	17.50(7.06)		통제	13.13(4.59)
진 취 형	성취	14.88(5.10)	3.17**	성취	18.18(7.26)	3.15**	성취	14.05(5.82)
	비성취	13.08(4.17)		비성취	15.63(5.99)		비성취	12.37(3.91)
	합리	15.02(5.12)		합리	18.07(7.03)	2.90**	합리	14.06(5.72)
	비합리	12.88(3.57)		비합리	15.78(5.73)		비합리	11.80(3.27)

* $p < .05$ ** $p < .01$

형에서는 부의 애정-적대 차원, 합리-비합리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진로홍미 점수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관심과 애정으로 대하고, 자녀들에게 합리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심미형 직업에 보다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형에서는 부의 애정-적대, 성취-비성취와 합리-비합리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진로홍미 점수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성취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자녀를 합리적인 태도로 대한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사회형 직업에 높은 진로홍미를 보였다. 진취형과 전통형에서는 부의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와 애정-적대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진로홍미 점수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성취동기를 부여하며,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수록 진취형과 전통형 직업에서 보다 높은 진로홍미를 가지고 있었다.

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

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홍미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모의 애정적, 성취지향적 그리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실재형을 제외한 모든

직업유형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는 탐구형 진로홍미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모의 양육태도와 실제형 진로홍미와는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실제형과 심미형에서는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실제형 진로홍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탐구형 직업에서는 모의 성취-비성취, 자율-통제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진로홍미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과업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무조건적 허용보다는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양육태도를 가질 때 탐구형 직업에 보다 높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형 직업에서는 모의 애정-적대, 성취-비성취와 합리-비합리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진로홍미 점수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성취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자녀를 합리적인 태도로 대한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사회형 직업에서 보다 높은 진로홍미를 보였다. 또한 진취형 직업에서는 모의 성취-비성취 차원에서 유의미한 진로홍미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성취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성취동기를

표 5. 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홍미의 관계

	실재형	탐구형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	전통형
애정-적대	.06	.10*	.08	.16**	.08	.09*
자율-통제	-.02	-.11*	.02	.01	-.04	-.01
성취-비성취	.05	.19**	.07	.18**	.15**	.14**
합리-비합리	.06	.07	.07	.13**	.07	.09*
양육태도(총점)	.05	.08	.08	.15**	.08	.10*

* $p < .05$ ** $p < .01$

표 6. 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흥미의 차이검증

	<i>M(SD)</i>	<i>t</i>		<i>M(SD)</i>	<i>t</i>		<i>M(SD)</i>	<i>t</i>
실 제 형	애정	14.33(3.58)	.82	애정	18.50(7.22)	1.66	애정	18.70(6.91)
	적대	13.82(3.52)		적대	16.99(6.89)		적대	17.45(6.98)
	자율	13.94(3.23)		자율	17.14(6.29)	- 2.82**	자율	18.25(6.51)
	통제	14.31(3.91)		통제	19.53(7.26)		통제	18.30(7.52)
	성취	14.61(3.90)		성취	19.47(6.86)	3.31**	성취	19.22(7.22)
	비성취	14.31(3.75)		비성취	16.78(6.47)		비성취	18.17(7.34)
사 회 형	합리	14.45(3.82)	.49	합리	18.94(7.21)	1.46	합리	19.07(6.91)
	비합리	13.94(3.71)		비합리	17.70(6.68)		비합리	17.69(7.14)
	애정	14.93(5.23)		애정	17.28(7.08)	1.71	애정	13.22(5.13)
	적대	13.06(4.05)		적대	15.82(6.00)		적대	12.52(4.25)
	자율	13.92(4.46)		자율	16.34(6.39)	- 1.60	자율	13.03(4.71)
	통제	14.21(4.95)		통제	17.66(6.82)		통제	13.11(4.38)
진 취 형	성취	15.07(5.04)	3.06**	성취	18.26(7.44)	2.72**	성취	13.97(5.68)
	비성취	13.31(4.37)		비성취	15.97(6.38)		비성취	12.66(4.18)
	합리	14.97(5.22)		합리	17.29(6.89)	1.96	합리	13.48(5.15)
	비합리	13.16(4.31)		비합리	15.74(5.95)		비합리	12.02(3.82)

p*<.05 *p*<.01

부여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진취형 직업에서 보다 높은 진로흥미를 보인다. 전통형 직업에서 도 모의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 차원에서 유의 미하게 진로흥미 점수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합리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전통형 직업에서 높은 진로흥미를 보인다.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성별,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7

과 같다. 실재형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성으로 전체변량의 2.3%($\beta = .15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텁구형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의 성취-비성취, 성별, 모의 자율-통제와 여성성으로 전체변량의 13.5%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의 성취-비성취 요인으로 전체변량의 5.0%($\beta = .211$)를 설명하고 있고, 성별 4.5%($\beta = -.198$), 모의 자율-통제 1.8%($\beta = -.154$), 여성성 2.3%($\beta = .155$)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성취지향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 남학생,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여성성이 텁구형 직업의 진로흥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심미형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7. 성역할 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흥미의 중다회귀분석

직업유형	예언변인	R	R^2	R^2 의 증가	β	t
실재형	여성성	.151	.023	.023	.151	3.25**
	부 성취-비성취	.224	.050	.050	.211	4.61**
	성별	.309	.095	.045	-.198	-4.48**
	모 자율-통제	.336	.113	.018	-.154	-3.41**
심미형	여성성	.368	.135	.022	.155	3.40**
	성별	.504	.254	.254	.519	12.70**
	여성성	.523	.274	.020	.113	2.72**
사회형	남성성	.532	.283	.009	.104	2.45**
	성별	.303	.092	.092	.314	7.20**
	여성성	.357	.127	.035	.175	3.96**
	부 자율-통제	.386	.142	.015	-.173	-3.57**
진취형	부 애정-적대	.396	.150	.008	.185	3.75**
	성별	.199	.040	.040	.248	5.47**
	남성성	.307	.094	.054	.163	3.40**
	여성성	.329	.108	.014	.126	2.67**
전통형	모 자율-통제	.341	.117	.009	-.113	-2.49*
	부 성취-비성취	.354	.127	.010	.105	2.23*
	성별	.198	.039	.039	.195	4.29**
사회형	부 성취-비성취	.248	.062	.023	.123	2.62**
	여성성	.270	.073	.011	.109	2.33*

* $p < .05$ ** $p < .01$

성별,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전체변량의 28.3%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로 전체변량의 25.4%($\beta = .519$)를 설명하고 있고, 여성성 2.0%($\beta = .113$), 남성성 0.9%($\beta = .104$)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여학생, 여성적 성향과 남성적 성향이 심미형 직업의 진로흥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형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여

성성, 부의 자율-통제와 부의 애정-적대요인으로 전체변량의 15.0%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로 전체변량의 9.2%($\beta = .314$)를 설명하고 있고, 여성성 3.5%($\beta = .175$), 부의 자율-통제요인 1.5%($\beta = -.173$), 부의 애정-적대 0.8%($\beta = .185$)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여학생, 여성적 성향, 통제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애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사회형 직업의

진로홍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진취형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남성성, 여성성, 모의 자율-통제, 부의 성취-비성취 요인으로 전체변량의 12.7%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로 전체변량의 4.0%($\beta = .248$)를 설명하고 있고, 남성성 5.4%($\beta = .163$), 여성성 1.4%($\beta = .126$), 모의 자율-통제 0.9%($\beta = -.113$), 부의 성취-비성취 1.0%($\beta = .105$)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여학생, 남성적 성향, 여성적 성향,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성취지향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진취형 직업의 진로홍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형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부의 성취-비성취와 여성성 요인으로 전체변량의 7.3%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로 전체변량의 3.9%($\beta = .195$)를 설명하고 있고, 부의 성취-비성취 2.3%($\beta = .123$), 여성성 1.1%($\beta = .109$)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여학생, 아버지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와 여성성이 전통형 직업의 진로홍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홍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형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탐구형을 제외한 실재형,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과 전통형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탐구형 진로홍미가 높고, 실재형

을 제외한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과 전통형 진로홍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홍미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김남규, 1999)와 심미형, 사회형 차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홍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Woodward, 1994) 결과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진로홍미의 차이는 성역할을 수행하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에 관심과 홍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이 요구되고 있어 탐구형을 제외한 모든 직업유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홍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이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보다 전통형을 제외한 탐구형, 실재형, 심미형, 사회형과 진취형 진로홍미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유형 및 직업선택에 유의미한 차이(이재창, 김용자, 1995)가 나타나며,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남성적 특성 및 여성적 특성의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Bem, 1981)하고, 상대적으로 적응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자기 존중감이 높고 자기 평가에 대해 긍정적(Baggio & Neilson, 1976)이어서 다양한 직업에서 진로홍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양성평등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및 외적 요인들’ 즉 진로장애 혹은 진로장벽(손은령, 2001)을 해소하고, 자기의 적성과 홍미를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통형 진로홍미에서는 여성성을 가진

초등학생이 보다 높은 진로홍미를 보였다. 이는 여성들은 전통적인 직업을 선호(Gianakos & Subich, 1988; 이제창, 임용자, 1995)하며 사교, 예술과 사무분야의 활동에서 더 높은 홍미(Fitzgerald & Betz, 1987)를 나타내며, 또한 전통형 직업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조심성이 있으며, 세밀하고 계획성이 요구되는 직업적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초등학생이 홍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의 양육태도가 예정적일수록 실재형, 탐구형, 심미형, 사회형, 진취형과 전통형 직업에서 진로홍미가 높았다. 그러나 모의 예정적 양육태도는 사회형 진로홍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이로 보아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진로홍미 측면에서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탐구형 직업에 대한 진로홍미가 높게 나타냈다. 이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아동의 부모는 통제, 성숙요구, 의사소통과 양육의 네 가지 차원에서 모두 높은 점수(Baumrind, 1971)를 얻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탐구형 직업은 적절한 자기 조절 능력과 과제 해결에 따른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적절한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이 탐구형 직업에 적절한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성취지향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탐구형, 사회형, 진취형과 전통형 직업에서 높은 진로홍미를 나타냈다. 이 또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아동의 부모는 통제, 성숙요구, 의사소통과 양육의 네 가지 차원에서 모두 높은 점수(Baumrind, 1971)를 얻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진로홍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는 탐구형 직업유

형에서 높은 진로홍미를 나타냈다.

합리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비합리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진취형, 전통형 직업유형에서 높은 진로홍미를 나타냈다. 특히 아버지의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가진 아동이 진취형, 전통형은 물론 탐구형, 심미형과 사회형 직업유형에서도 높은 진로홍미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보다 아동의 진로홍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성별요인이 실재형을 제외한 모든 직업유형의 진로홍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라 진로홍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Woodward, 1994; 김남규, 1999)는 연구 결과와 같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성별의 구분이 진로홍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초기에는 사회가 정해 놓은 남녀의 역할을 수용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성격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되어 양성성 성역할 발달이 완성(Bem, 1985)되어 간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시기에는 성역할 정체감보다는 성별의 구분이 진로홍미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진로홍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이 영향을 더 미치고 있었다. 이는 직업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대부분의 직업에서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이 요구되고 있어 여성성이 진로홍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합리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훈련이나 상담활동이 초등학교 여학생보다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에게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진로홍미를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요구되며, 교육현장에서는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담활동 및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진로흥미와 관련된 부모 양육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알 수 있었고, 성역할 정체감과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의 관계를 통하여 양성성의 초등학생이 높은 진로흥미를 가진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초등학교에서의 양성평등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도출된 결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첫째, 실제형 진로흥미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흥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성차에 의한 진로흥미의 차이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통제지향적인 양육태도가 탐구형, 사회형, 심미형과 진취형 진로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규 (1999). 직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 감이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창규 (1996).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가이던스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윤정선 (1999). 중학생의 직업흥미에 관련된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임용자 (1995). 성역할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여대생의 전통적 진로유형 및 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1-19.
- 임용자 (1994). 성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용오 (2000). 효과적인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흥미검사의 활용. 진로교육연구, 12, 83-98.
- 정진선 (2002).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의사 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ggigo, M. K., & Nielson, E. C. (1976). Anxiety correlates of sex role ident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619-623.
- Bailey, L. J., & Stadt, R. (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ton, IL: McNight.
- Basow, S. A., & Howe, K. G. (1979). Model influence on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3), 239-243.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1, Pt.2).
- Bem, S. L. (1975).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Ellen, P. C. (1987). Psychological androgyny: A review of th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 471-513.
- Fa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an and m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Fitzgerald, L. F., & Betz, N. E.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an*. New York: Academic Press.
- Gianakos, I., & Subich, L. (1988). Student sex and sex role in relation to college major cho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259-268.
- Ginzberg, E.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es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lland, J. L.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2nd ed.). Odessa, FL: Psychology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er, J. W. (1972). Differential parental influence on vocational interest development in adolescent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67-76.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Marsui, T. (1994). Mechanisms underlying sex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expect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 Behavior*, 45, 177-184.
- Martin, G.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Moritimer, J. T. (1992). Influence on adolescents' vocational develop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2 555).
- Mussen (1962).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New York: Wiley.
- Roe, A. (1956).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ew York: John Wiley.
- Schaefer, E. S. (1959). A circo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 226-235.
- Super, D. E. (1984). Assessment in career guidance: Toward truly development counseling.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May, 555-562.
- Symonds, P. M. (1949). *Psychology Parents-Child Relationship*. New York: Appleton Century Crafts.
- Wertheim, E. G., Widom, C. P., & Wortzel, L. H. (1978). Multivariate analysis of male and female professional career choice correlat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234-242.
- Woodward, L. C. (1994).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interests and the expressiveness and instrumentality dimensions.
- Zytowski, D. G., & Warman, R. E. (1982). The changing use of test in counseling. *Measurement and Education in Guidance*, 15, 147-152.

원고 접수일 : 2003. 12. 5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 15

제재결정일 : 2004. 2. 3

The Effects of Sex Role Identity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Career Interes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Yong-Kewn Ji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ex-Role Identity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career interes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verify the study subject, surveys were distributed to 457 Grade 6 students in Gyeonggi-do. We performed factor analysis, t 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s, boys showed high interest in career in Investigative type, while in Realistic,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and Conventional types, girls showed higher interest in career. Androgynous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more interest in Investigative, Realistic, Artistic, Social and Enterprising type than undifferentiated students. Furthermore, those who perceive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s affectionate, achievement oriented, rational and regulatory showed higher career interest. Factors influencing career interest were gender, femininity, fathers' achievement oriented nurturing attitude, mothers' regulatory nurturing attitude and education level of mother. Among them, the biggest impacting factor was gender. Therefore, to enhance the career interes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s need to have desirable nurturing attitudes. In the educational field, we need to develop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o do our best in counseling and educational efforts in order to overcome the stereotype of sex role and let them choose their career considering their own aptitudes and interests.

Key Words :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ex-role identity, career interest, androgyny identity